

# 사회적 쟁점에 대한 발언으로서 다큐멘터리의 수사학 연구:

EBS-TV <지식채널②>를 중심으로\*

김남일\*\* · 이규정\*\*\*

이 연구는 2004년 방송 이후, EBS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지식채널②>를 미디어 텍스트로 보고, 그 구성방법과 사회적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빌 니콜스의 ‘수사학’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첫째, <지식채널②>는 한국 사회의 시의성 있는 주요 이슈를 대상으로 이와 관련된 ‘지식’을 동원하여 다큐멘터리라는 형식을 빌려 현실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발언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이 프로그램은 의미발생과정에서 ‘수사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비교적 짧은 텍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의미생산을 위한 ‘수사학적 과정’이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다. 더구나 이 프로그램은 현실사회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독특한 영상구성 방식을 채택하여 감성적 충격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의미생산 구조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고 있었다. 셋째, 이를 심층적으로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 분석하면 <지식채널②>는 우리 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생성하는 이데올로기적 투쟁의 장을 형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에게는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뒤엎는 전복적 즐거움까지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 배경에서 이 연구는 흔히 접할 수 있는 우리 주변의 ‘지식’이 나름대로의 정치성을 띠고 있으며, 특히 이 프로그램은 한국 방송 문화에서 중요한 문화정치적인 의미를 지닌 미디어 텍스트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지식’을 매개로 ‘수사학적 과정’을 통해 현실 사회에 적극적인 발언을 수행함으로써 ‘지식저널리즘’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수사학, 다큐멘터리, <지식채널②>, 지식저널리즘, 즐거움, 영상문화연구

## 1. 문제제기 : 현 시기 ‘지식’과 ‘다큐멘터리’의 역할

지식은 넓은 의미에서는 “인류 문화가 태동한 이래 인류의 다수가 ‘참’으로 믿어왔고, 경험적으로도 체험되고 있는 모든 지적 가치들의 총체(Merton, 1968, p.349)”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좁은 의미로는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실증적 검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들에 의해 생산되고 검증되고 논리체계를 갖춘 지적 가치들의 총체”로 정의된다. 이와 함께 지식의 권력적 속성에 근거한 정의도 다양하다. 이는 무엇보다도 ‘지식’이 가지는 권력적 속성에서 기인한다. 소수의 지배세력만이 지식을 독점하면서 사회 운영체계에서 일반인들을 배제하려는 권력적 메커니즘을 경계하려는 것이다(최항섭, 2008). 즉 모든 지식행위는 자기 성찰을 전제로 하는, 모두가 당연하게 여긴다 해도 물음의 행위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물음의 행위로 지배체계의 지식이 누리는 독점의 특권을 휘저어 놓는다(박영신, 2007). 더구나 사회적 복잡성이 커져버린 상황에서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지식에 직면하게 된다. ‘전문가적 무지’의 차원을 넘어, 그 누구라도 전체에 대한 일관되고 합리적인 상을 형성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어떤 사건이든지 음모론이 등장하는 이유도 이런 데 있다. 예컨대 ‘황우석 사태’와

\* 이 논문이 발전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를 맡아주신 익명의 세 분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 경기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강사, 주저자(nik04@naver.com)

\*\*\* 경기대학교 영상학과 교수(lgjeong0227@hanmail.net)

같은 사건은 오늘날의 지배 권력이 스스로의 권력과 위치를 강고하게 재생산하는 계기로써 ‘새로운 지식’을 사용한다는 것을 실증했다(천정환, 2008).

이러한 ‘지식’의 문제가 현실 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유통될 때 그 의미는 각별해진다. 대중매체는 2차 지식 생산자(secondary definer)로서 사회 내 유통될 지식의 내용을 규정하고, 지식을 발굴하고, 평가하는 등 지식을 가공한다. 매체라는 여과장치를 거치는 순간 지식의 순도는 반감되고, 내용은 왜곡되거나 진보적 내용은 배제된다는 우려를 쏟아낸다. 그리고 매체의 지식 생산적 조건 즉 상업주의, 시청률 지상주의, 대중 추수주의 등에 그 혐의를 뒤집어 씌워왔다(원용진, 2006, 70쪽). 이러한 배경에서 2005년 9월 처음 방송을 시작한 EBS <지식채널②><sup>1)</sup>는 한국사회에서 처음으로 ‘지식’을 가지고 시의성 있게 사회 내부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처음부터 ‘지식형 프로그램’으로 선언하고 제작된 점에서 주목되며, 특정 지식이나 주제에 대한 밀도 있는 영상과 자막으로 제작된 고품격 지식 콘텐츠를 지향해 왔다(임종수, 2006). 이 프로그램의 제작진에 따르면 <지식채널②>가 추구하는 가치는 ‘상식’이고, 현재는 그 상식이 위협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상식’을 위해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한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의 소재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회적 이슈의 말단, 가장 침예하게 얽혀 있는 곳에서 출발하여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 또는 선택한 정보가 충분한지,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아닌지를 짚어주는 역할을 한다.<sup>2)</sup> 다큐멘터리의 근본적인 존재이유는 사회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는 쟁점에서 합의를 창출하거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이고, 그 구성방법에 있어 수사학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어떤 쟁점에 대해 아직 분명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거나 분명한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 다큐멘터리는 특정관점에서 그 쟁점을 보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Nichols, 2001/2005). 그렇다면 다큐멘터리가 제공하는 지식은 어떤 종류의 지식인가? 이 지식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안다고 믿게 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중요성을 지닌 문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지식채널②>가 다루는 ‘지식’의 문제는 진실의 문제라기보다는 ‘상식’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지식이 잘못된 사실이거나 혹은 그 뒤에 숨겨진 이면의 배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밝혀내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존의 당연시되는 ‘지식’에서 벗어나 어떠한 방식에 의해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새로운 ‘상식’으로 드러내느냐의 문제이다. 통상 다큐멘터리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시대적 이슈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한다. 다큐멘터리와 역사 세계의 연결 관계는 깊고도 심오한 것으로, 다큐멘터리는 대중의 기억과 사회의 역사에 새로운 차원을 더해 준다(Nichols, 2001/2005, 29쪽). 이러한 ‘상식’을 밝혀내기 위한 프로그램의 독특한 제작양식은 사회·문화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밝히는 작업이 중요하다. 더구나 오늘날 자본-권력은 ‘불확실성’으로부터 ‘불안’을 끌어내며, ‘불안’을 가치화하여 복종을 이끌어내는 것을 주요한 전략으로 한다. ‘새로운 불확실성’이면서 ‘복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소재의 개발은 자본-권력에겐 너무 중요하다(천정환, 2008, 76쪽). 이러한 관계를 고려하면 ‘지식’은 현실적 권력관계를 수반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현실사회의 ‘지식’의 문제를 다루는 행위는 당시의 이데올

- 1) 원래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 온타리오 텔레비전의 2~3분짜리 SB(Station Break)인 ‘~matters’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EBS의 ‘지식채널’ 이미지 강화를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따라서 <지식채널②>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SB로부터 출발했다(임종수, 2007, 166쪽). 최근 방송계에는 <지식채널②>와 유사한 양식의 프로그램이나 SB들이 많이 제작되고 있다. 특히 공익성 캠페인 광고에서 많이 차용하는데, KBS의 ‘한국의 유산’ 캠페인이 그 예다.
- 2) 공식 웹사이트는 <http://home.ebs.co.kr/jisike/main.jsp>이다.

로기를 분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식채널②>가 한국 사회의 현실에 대해 어떻게 ‘지식’이라는 도구를 통해 이야기를 구성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상식’이라는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특히 제기된 사회적 이슈나 문제가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폭로하고 있는지, 또 다큐멘터리가 어떠한 구성을 가짐으로써 이러한 것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배경에는 프로그램의 구성방식이나 요소들, 즉 이 연구는 <지식채널②>를 텍스트로 보고 그 속으로 들어가 구성방식과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수사학적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특징을 알아보고, 이 프로그램이 담고 있는 사회적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 2. 이론적 논의

### 1) 다큐멘터리에서 수사학: 설득과 논증의 도구로서 ‘수사학적 과정’

서양의 전통에서 말과 글의 다양한 쓰임은 대략 다음 세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스토리를 전달하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시학 및 내러티브(narrative)’, 과학적·철학적 탐구정신 내에서 작동하는 문제들을 위한 ‘논리학’, 논쟁의 대상이 되는 쟁점에 있어 합의를 창출하거나 동의를 얻기 위한 ‘수사학’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수사학’은 그 어떤 사실과 논리로도 적절한 행동이나 현명한 결정, 통찰력 있는 시각에 대한 결론적인 지침을 얻을 수 없는 가치 및 신념의 문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다(Nichols, 2001/2005). 따라서 논쟁적이고 결정 불가능한 영역에 놓인 것에 대해 판단을 내리도록 만들거나 설득하는 것이 수사학의 임무라 할 수 있다. 이를 미디어에 대입해보면, 미디어에서 어떤 쟁점에 대해 아직 분명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거나 분명한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 다큐멘터리는 특정 관점에서 그 쟁점을 보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다큐멘터리는 허구적 이야기를 전달하는 픽션과 달리 수사학적(rhetorical)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Bordwell & Thompson, 1993/1995, 586쪽). 특히 시사 다큐멘터리는 우리 자신의 특정한 시각을 갖게 하기 위해, 여러 형태의 사회적 관행이 어떠한 것인지를 재현을 통해 보여준다. 이러한 다큐멘터리는 사회적 관행 및 제도적으로 매개된 관계에 대한 일반적 범주들—가족생활, 성적 성향, 사회 갈등, 전쟁, 국가, 민족성, 역사 등—을 대상으로 특정한 관점에서 그 대상을 바라보고 가치를 부여하고 평가하여 하나의 방식으로 재현해 내게 된다. 이는 특정한 이유와 가치 체계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기 위한 거름의 장이자, 궁극적으로는 현 문화의 지배적 관행 및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거나 아니면 그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의 장이 된다. 그래서 논리나 물리적인 힘으로 쉽게 장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사적 기술이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닌다(Nichols, 2001/2005). 특히 수사학적 접근의 특징은 명백한 결점이나 잘못된 추론의 숨겨진 단편들, 실제적인 추론의 조각들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추론보다는 가치관과 신념, 가정과 관습에 따라 결정이 내려진다는 데 있다.

자네티(Giannetti)는 다큐멘터리가 사실을 다루며, 구조화 되어 있지만 플롯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1996/1999, 353쪽). 즉 다큐멘터리는 드라마 등 픽션물에 비해 서사구조가 느슨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사실에 대한 관찰과 그 관찰을 통한 진실을 찾기 위해 구조적 표현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장은 존 그리어슨(Grierson, J)이 다큐멘터리에 대하여 ‘현실의 창조적 처리’라고 정의한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즉 다큐멘터리는 특정한 시공간으로 관객을 인도하는 개개의 쇼트 및 신들과 이러한 요소를 보다 큰 전체 안에 조직화하는 과정의 조합으로서 힘과 매력을 갖게 된다. 이러한 구성작업에는 문제-해결구조, 시작과 끝이 있는 스토리, 위기에 초점 맞추기, 톤이나 분위기에 대한 강조 등이 있다(Nichols, 2001/2005). 또한 플랜팅거(Plantinga, 1997)는 다큐멘터리 구조에 관해 서사가 세상을 투영하는 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수사적 구조(rhetorical structure)와 서사구조(narrative structure)로 분류하고 있다. 수사적 구조의 특징을 지닌 다큐멘터리는 설득(persuasion)과 논증(argument)으로 구분한다. 논증은 전형적으로 형식적이고 논리적인 과정으로서 사고를 의미하며, 현저한 증거, 진실된 증거를 가지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성애 호소한다. 반면에 설득은 보다 덜 형식적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하거나 믿도록 하는 예술로서 그러한 과정을 ‘예술적 증명’(artistic proof)이라고 할 수 있다. 다큐멘터리가 수사적 전통에 맞춰지는 것은 수용자들에게 믿음을 주입시켜 실제세계로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이고, 이 때 그 수사법은 미학적인 목적뿐 아니라 사회적인 목적으로도 기능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다큐멘터리는 시청자들에게 의미를 강요하며, 실제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여 논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해석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든다(Stott, 1973).

일반적으로 다큐멘터리는 혐오감이나 투사보다는 시청자(관객)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스토리를 끌여가려 한다. <표 1>과 같이 이 과정에서 ‘수사학적 과정’은 ‘다섯 가지 부문’으로 나뉜다. 여기에서 ‘수사학적 과정’이란 키케로(Cicero)의 ‘웅변(De oratore)’에서 웅변가의 활동과 능력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한다. 즉 “웅변가는 먼저 말할 거리를 생각해내야 한다(착상, invention). 그리고 찾아낸 것들을 각각의 주장이 지닌 정확한 무게를 식별할 수 있는 눈으로 조절하고 늘어놓는다(배치, arrangement). 그 다음에는 스타일이라는 꾸밈 속에 배치한 후(스타일, style), 기억 속에 잘 보관해 둔다(기억, memory). 끝으로 매력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전달하기, delivery)” 등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Nichols, 2001/2005, 97쪽에서 재인용).

<표 1> 다큐멘터리의 수사학적 과정에 나타나는 다섯 가지 부문<sup>3)</sup>

구분	의미	주요기능	세부내용
착상	어떤 입장이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나 ‘증거’의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예술적(또는 비인공적) 증거 : 어떠한 사실에 호소. 목격자나 문서기록, 물리적 증거, 모발이나 지문, 혈액샘플 등 과학적 증거</li> <li>-예술적(또는 인공적) 증거 : 관객의 감정에 호소. 결정적이거나 증거라는 느낌(impression)을 만들어 내기 위해 고안된 생산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술적 증거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윤리적 증거: 예술적 증거에는 훌륭한 도덕적 인물이라거나 신뢰할 수 있다는 인상을 유발</li> <li>· 감성적 증거: 바라는 경향을 이끌어 내기 위해 관객의 감성에 호소하는 유형</li> <li>· 예증적 증거: 실제적이거나 명백한 추론 혹은 실례를 이용하는 유형</li> </ul> </li> </ul>
배치	수사적 연설이나 영화에서 부분들을 위치시키는 통상적인 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사의 다양화 과정</li> <li>· 아리스토텔레스 : 두 단계(전형적인 이야기 배치방식 문제-해결구조) =&gt; 퀸틸리아누스 : 다섯 단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전적 수사의 극복</li> <li>· 열린 결말을 통한 다양한 시각 허용</li> <li>· 증거와 감성의 결합을 통한 극적 효과 추구</li> </ul>

3) 빌 니콜스(Nichols, 2001/2005)의 97~113쪽을 정리하여 재구성하였음.

스타일	특정한 톤을 얻기 위해 이야기의 형태와 문법 코드를 사용하는 모든 방식	디큐멘터리의 특징적인 형식(일기, 에세이 등) 및 양식(설명적, 성찰적 등)에 의해 조절되어 디큐멘터리 작동되는 것	-형식 : 일기, 에세이 등 -양식 : 시적, 설명적, 관찰자적, 참여적, 성찰적, 수행적 양식 등
기억	현장에서 이야기를 전달할 때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음	-첫째, 대중적 기억의 원천이 되는 외연적·시각적 재현 -둘째, 관객이 현재 있는 것을 해석하기 위해 이전에 본 것을 다시 불러내는 과정(회고)	-역사기록 또는 자료, 회상 신(scene) 등⇒전체적으로 해석하는 데 결정적일 수 있음
전달하기	관객에게 디큐멘터리의 유효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주장이나 관점을 진전시켜나가는 방식인 해설과 시각의 구분과 유사함	-제스처 : 비언어커뮤니케이션으로 연기나 스타일에 의해 전달 -목소리 : 화술과 예절(decorum)은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자, 수사 자체가 지닌 실용적, 효과 지향적, 결과 지향적 본성을 반영하는 것

<표 1>에 나타난 ‘수사학적 과정’의 ‘다섯 부분’을 차례로 살펴보면 첫째, ‘착상’은 “디큐멘터리가 어떤 입장이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나 ‘증거’의 발견을 어떻게 하고 있는 지”에 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디큐멘터리에 필요한 수사적 구조가 ‘논증’과 ‘설득’이라면 논증에 해당되는 것이 ‘비예술적 증거’라 할 수 있고, ‘설득’에 해당되는 것이 ‘예술적 증거’라 할 수 있다. ‘비예술적 증거’란 논쟁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사실이나 근거를 말하기 때문에 사실상 디큐멘터리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디큐멘터리는 철저히 과학적 증거에 의한 논증을 통해 사람들에게 의미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술적 요소에 의한 설득을 통해 디큐멘터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배치’는 디큐멘터리의 이야기를 나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데, 단순한 문제-해결구조에서 일종의 서사구조로 발전해온 것을 알 수 있다.<sup>4)</sup>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고전적인 수사적 특징, 즉 문제의 양면을 부각시키는 이분법적 가치판단의 틀 내에 쟁점을 위치시키는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을 통해 열린 결말을 추구해야 하고, 나아가 증거와 감성을 결합시킴으로써 가치와 신념에 의한 선택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스타일’은 디큐멘터리 이야기 방식이나 문법코드에 의해 시청자가 분위기를 알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디큐멘터를 구성하는 데 있어 사용되는 특징적인 형식(일기, 에세이 등) 및 양식(설명적, 성찰적 등)에 의해 그 느낌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디큐멘터리가 제작되어 온 오랜 관행상의 양식에 따라 시청자들은 다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디큐멘터리의 제작 양식이 정립되어 왔다.<sup>5)</sup> 넷째, ‘기억’은 디큐멘터리의 전체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각종 자료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의미생산에 기여하는 지를 살펴보는 단계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전달하기’는 디큐멘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청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의미를 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작양식에 있어

4) ‘도입-설명-주장-논증-요약’으로 이뤄진 ‘배치’는 프로프(Propp, 1967)이 제시한 6개의 내러티브 단계 즉 ‘준비-복잡-사건의 전환-갈등-회복-재인’과 유사하다.

5) 빌 니콜스(2001/2005)는 디큐멘터를 ‘시적 양식(poetic mode)’, ‘설명적 양식(expository mode)’, ‘관찰자적 양식(observational mode)’, ‘참여적 양식(participatory)’, ‘성찰적 양식(reflexive mode)’, ‘수행적 양식(performative mode)’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형식적인 차별화를 통한 수사학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다.

다큐멘터리는 이러한 수사학적 과정을 통해 시청자의 호기심이나 욕망에 호소함으로써, 사람들이 기존에 지닌 가정(assumption)과 경향(tendency)에 대해 그 다큐멘터리가 의도하는 특정한 관점에 이끌리도록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수사학적 과정’을 상세히 분석하는 것은 기존의 텔레비전 텍스트 서사구조 분석에 비해 보다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왜냐하면 수사학적 과정의 다섯 부문 중 ‘배치’만이 기존연구에서 주로 다뤄온 서사구조 분석과 조용하게 되고, 나머지 ‘착상’이나 ‘스타일’, ‘기억’, ‘전달하기’ 등은 분석대상 미디어 텍스트의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부터, 제작양식, 다큐멘터리로서 의미 생산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러한 연구방법은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이 가능함으로써 영상문화연구의 중요한 방법으로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2) ‘지식’을 통한 사회적 문제 제기 그리고 <지식채널②>

통상 지배세력은 언제나 더 많은 지식과 정보의 양을 배타적으로 보유하려 한다. 국가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공동체와 그 구성원에 관한 지식을 생산·관리한다. 국가와 결부된 권력 중 일부는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할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모두 공개하지 않으며,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와 지식만을 제공하거나 또는 왜곡하고, 이에 그 접근권을 차단하기도 한다(천정환, 2008). 그렇다하더라도 민주사회를 사는 현대의 지식 이용자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그 지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요구에 맞는 지식을 스스로 ‘구성’해 낼 수 있어야 한다(임종수, 2006). 즉 지배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지배체제에 순치되어 융성한 체제의 보상을 받으며 지식을 더욱 공고히 할 때도, 삶의 지식을 그리는 지식의 사람은 그 체제 안에 주저앉아 안일한 일상을 피하지 않아야 한다(박영신, 2007). 현재 한국사회의 지식 지형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오히려 그 혼란스러움이 현 단계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동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지식 사회학자인 버크(Burke, 2000)에 따르면 과거 산업사회의 지식이 속도와 효율성을 강조한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주입식으로 의사소통되었다면, 지금의 지식은 다양성과 창조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구성주의적 측면으로 구성되고 있다고 한다. 흔히 현재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지식’ 또는 ‘지식인상’은 ‘what to know’가 아니라 ‘how to know, where to know’라고 한다(임종수, 2006, 296쪽). 이러한 현상은 최근 포털을 중심으로 지식검색 또는 이용자 중심의 백과사전류에 열광하는 것은 지식이 소수의 전문가가 향유하면서 권력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생산해 내는 것으로 바뀌는 것에서 알 수 있다(임종수, 2007). 즉 모든 지식은 번역되고 표현되는 과정을 통해서만 ‘사회적으로’ 존재한다. 이 같은 표상작용을 삶의 ‘물질화’ 혹은 ‘사회화’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식의 형식 속에는 권력관계와 담론의 표현형식, 그리고 계급·국가·젠더·지역의 상황(맥락)이 담겨있다. 그래서 지식은 투명하지 않다(천정환, 2008).

현대사회의 대중매체가 지식세계에서 갖는 큰 힘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정확한 분석들은 많지 않았다. 설사 있다하더라도 무관심 혹은 무시 속에 힘은 인정하되, 그 힘에 의해 2차 생산되는 지식은 늘 허위적 지식이거나 과대 포장된 지식이며, 그를 제어할 마땅한 수단이 없으므로 대안적 지식세계 체도를 꾸려야 한다는 정도의 반응이었다(원용진, 2006). 그러나 이제는 지식세계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대중문화의 틀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 통상 사회가 구성원들에게 요청하는 ‘일반적 상식’ 또는 ‘보편적 감각과 취향’, 즉 공통감각(common sense)의 구축이 ‘대중화’이며 ‘대중문화’다. 대중문화의 상품들은 이런 지식과 감각에 편승하여 존재하며, 다시 이런 감각과 지식을 광범위하게 재구축하는데 기여한다. 이러한 피드백 과정은 미디어에 의해 매개되어 사회 전영역으로 무한히 번져나간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취향과 이데올로기, 그리고 지식조차 사실 대부분 ‘대량 생산’된 것들이다(천정환, 2008). 여기에서 ‘대중화’의 핵심은 보편화·일반화라 할 수 있다.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대부분의 다큐멘터리는 사회적 현실이나 사실을 전달하는 장르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아왔다. 다큐멘터리는 특정한 시공간으로 관객을 인도하는 개개소프트 및 신들과 이러한 요소를 보다 큰 전체 안에 조직화하는 과정의 조합으로서, 이러한 조합을 통해 다큐멘터리 영화는 힘과 매력을 갖게 된다. 이러한 다큐멘터리가 통상적으로 소구하는 것은 자명성이 확실한 자연과학적 진실이라기보다는 바로 토론과 논쟁의 대상이 되는 개념 및 쟁점이라 할 수 있다. 다큐멘터리는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 증거를 이용하여 설득력이나 수사에 의해 전달한다. 특히 다큐멘터리는 시청자가 지닌 지식애호증(알고자 하는 욕망)을 자극하여 정보 전달의 논리나 사람을 설득하는 수사학,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시학 등을 전달하며, 이를 통해 시청자는 정보와 지식, 식견과 인식을 얻게 한다. 그럼에도 다큐멘터리가 제공하는 지식은 중립적이지 않으며, 권력과 책임이 얽혀 내재한다(Nichols, 2001/2005). 다큐멘터리는 사회적·역사적 현실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 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이러한 이야기 방식은 우리가 말하고 결정하는 것이 실제 사건의 경과에 영향을 미치고 실제 결과를 수반하게 된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얽혀 의례와 매체, 그리고 제도에 의해 뒷받침되고 지식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주체들에 근거한 사회문화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즉 얽혀 이데올로기, 표상과 심성, 그리고 담론의 구조와 권력 문제, 또한 민족·세대·계급의 문제에 연관된다(천정환, 2008).

그런 ‘지식’이 아직까지 대중매체 속에서 견고하게 자리 잡지 못한 채 모호한 상태로 유지되어 왔고, 그런 의미에서 대중매체의 한 장르인 다큐멘터리를 통한 지식의 전달과 진실 찾기의 문제는 오래된 이슈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지식채널⑨>를 다룬 대표적인 연구들로는 이 프로그램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문자의 도영상화, 문자 애니메이션의 특성을 중심으로 그것의 매체 문화적 의미를 탐구한 연구(최민성, 2008), 현재 미디어계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다양한 OSMU(One Source Multi Use)환경에서 방송 지식콘텐츠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한 연구(임종수, 2006), 지식 저널리즘<sup>6)</sup>과 텔레비전 문화의 측면에서 이 프로그램의 생산자인 프로듀서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현실사회의 지식이 어떠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지를 탐구한 연구(이영주·김진혁, 2009) 등이 있다. 특히 이영주와 김진혁의 연구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주요 다큐멘터리를 생산하는 방송 프로듀서들은 객관성과 기계적 공정성보다는 소외된 소수자의 목소리, 정의의 목소리를 담은 것을 저널리즘의 본연의 임무로 파악하고 기자들과는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 사회의 지식세계를 대중에게만 아니라, 역으로 지식세계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했을 만큼 값진 것이고 주목할 만하다고 한 연구(원용진, 2006)와 그 궤를 같이 한다. 한편 임종수(2007)에 따르면 <지식채널⑨>는 디지털시대 지식 구성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주는데, 그 구성방식과 문자,

6) ‘지식 저널리즘’이라는 용어는 미디어가 어떠한 주제나 소재를 다룰 때 기본적으로 ‘지식’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따지고 캐묻는 방식을 제공하고 폭 넓은 주제들을 다루고 사유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소통의 잠재성과 가능성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임종수, 2006; 박영신, 2007; 이영주·김진혁, 2009).

기호, 영상 등 다양한 텍스트 요소로 구성되어, 이를 통해 가르침을 내리는 지식전달보다는 감동을 통한 동의라는 소통을 겨냥한다고 한다. 나아가 <지식채널②>는 인쇄물에서 주는 평면적 지식이나 뉴스 등에서 주는 파당적 지식이 아닌, 지식 자체가 의미하는 구체적인 모습으로서 ‘실질적인 지식 (practical knowledge)’을 제공한다고 한다. 또한 김고종호(2008)에 따르면 <지식채널②>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기존의 백과사전식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고 흥미로운 메시지를 담고 있고, 형식에서도 내레이션 없이 영상과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참신하다고 하며, 제일 큰 강점은 감성적 지식을 전달한다고 한다. 기존의 지식이 감성적인 것을 배제했다면, 이 프로그램은 오히려 감성적인 것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지식채널②>는 ‘지식’을 통하여 저널리즘적 역할을 하는 텍스트로 간주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 기대어 보다 구체적으로 다큐멘터리의 수사학적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어떻게 의미를 생산하여 이데올로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여기에서 ‘지식(畵)’을 다룬 다큐멘터리인 <지식채널②>를 분석하는 데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데 다양한 접근방식과 가치 및 관념체계가 결부되고 관련되어 상호 경쟁을 하는 투쟁의 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텔레비전 대중문화 텍스트가 의미생산과정에서 어떻게 즐거움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 3. 연구문제, 분석대상과 방법

이 연구는 EBS-TV <지식채널②>를 중심으로 대중매체인 텔레비전이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사회적 발언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 프로그램은 시의성 있는 주제를 통해 현재 한국 사회에 만연되어있는 지식세계의 편향성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으며, 제작방식에서도 특징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극영화의 구조를 조직하는 것이 스토리의 설득력이라면 다큐멘터리의 구성을 관장하는 것은 정보전달의 논리이다. 다큐멘터리가 제기하는 특정 주제들의 개념 및 쟁점은 그 자체로는 비가시적이다. 특정 주제나 개념들만으로는 구체적인 의미를 생산해내기가 어려운데, 그 자체로는 만질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이 개념들을 통상 제시하는 장면을 통해 예를 들고, 음성 해설을 통해 의미를 확정 짓는 형식을 갖는다. 따라서 다큐멘터리가 의도하는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상의 구성과 편집이 중요한 예증의 역할을 맡게 된다.

<지식채널②> 제작진들은 공식웹사이트에서 프로그램의 기획의도를 “<지식채널②>는 지식 그 자체보다는 ‘지식’을 바라보는 시각에 주목한 것이다. .... 각자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에게 따라 ‘메시지’는 매우 다양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어떠한 지식은 기존의 가치관을 강화시키기도 하고 어떠한 지식은 그 반대이기도 하다. 결국 지식 그 자체는 완벽하게 객관적일 수 없다. 따라서 제작진은 기계적인 객관성을 취하거나, 반대로 하나의 결론을 내리고 시청자를 설득하기보다는 최대한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던지고 시청자가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만들어 가는 것에 프로그램의 목적을 두었다. ....”라고 말한다. 이는 빌 니콜스(2001/2005)가 말한 통상 다큐멘터리는 현실의 충실한 사본이 아니라, 현실의 창조적 처리라는 지적과 일맥상통한다. 이를테면 로켓발사, 치료기간의 진행과정, 특별한 경기나 스포츠 게임 같은 특정 사건 및 상황의 기록물이나 감시용 촬영필름처럼, 사본이나 사실의 엄격한 기록은 나름의 가치를 지닌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물은



다큐멘터리보다는 엄격하게 증거자료나 ‘단순한 촬영 필름’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다큐멘터리는 증거를 정리하고 난 후 그것을 이용하여 세상에 대한 자신의 수사적인 반응, 자신만의 관점이나 주장을 구축하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식채널②>를 다큐멘터리 텍스트로 보고, 이 프로그램 텍스트의 ‘수사학적 과정’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렇게 <지식채널②>의 내부로 들어가 수사학적 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것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지식채널②>는 어떠한 수사학적 과정에 의해 이야기를 만들어 내고 있는가?

둘째, <지식채널②>가 생산하는 의미들의 사회적 함의는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8월 현재까지 제작된 650여 편의 <지식채널②> 가운데 EBS 자체 웹 사이트에 게재된 ‘맷글 순’으로 ‘17년 후’, ‘명품 한우’, ‘세상에서 가장 싼 밥’, ‘청산되지 않은 과거’, ‘별금 인생’ 등 상위 5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우선 시청자의 반응이 높은 작품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사회화의 정도를 파악했기 때문이고, 질적 분석방법의 특성에 따라 각각의 작품 내부로 들어가 상세한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5개의 작품들을 선정하였다.<sup>7)</sup>

연구방법으로는 빌 니콜스(Nichols, 2001/2005)가 다큐멘터리의 ‘수사학적 과정’에 대한 논의에서 주장한 방법을 차용하여 사용하였다. 사실상 다큐멘터리는 분리된 쇼트와 신(scene)들을 극영화보다 더 광범위하게 배열하며, 그 배열은 중심인물 위주로 조직된 내러티브보다는 중심 논리나 논의 위주로 조직된 수사학에 의해 연결된다(Nichols, 2001/2005, 69쪽). 따라서 이들 5편의 프로그램을 반복하여 시청하면서 수사학적 과정들을 상세히 도출하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도출되는 요소들은 질적 연구의 특성상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겹쳐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서, 보다 확연히 드러나는 것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그 의미들을 찾으려 했다. 5개 프로그램의 영상과 이야기의 전개 순서를 나열하고, 수사학적 과정이 어떻게 얽혀 의미를 생산하는 지를 밝히고자 했다. 이러한 분석이 갖는 수사학적 논의의 유용성은 <지식채널②>와 같은 텍스트를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수사학적 구성에 따라 프로그램의 의도와 수용자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정의 변화 문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이 프로그램이 다룬 한국 사회의 쟁점들과 지식을 둘러싼 그 이면의 진실 찾기, 새로운 ‘상식’의 구성가능성을 타진해보았으며, 그 사회문화적 의미는 무엇인지를 해석해 내고자 하였다.

7) 이 프로그램의 공식 웹사이트에는 ‘무차별(random)’, ‘방송일순’, ‘별점순’, ‘맷글순’ 등 찾아보기 메뉴가 있다. 그 중에서 ‘맷글순’에 주목한 것은 인터넷 이용 경험에서 단순한 ‘조회’에 그칠 가능성이 큰 ‘조회수’보다는 시청경험이 있어야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맷글순’의 타당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별점순’도 유용하기는 하지만 동점(최고 별 5개)이 너무 많아 대상 선정의 기준으로 삼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 4. 다큐멘터리의 수사학: 현실사회에 대한 발언과 설득 너머의 세계

##### 1) <지식채널©>의 주제와 관점들: ‘지식’을 무기로 사회에 대해 발언하기

2010년 8월까지 제작된 총 640여 편의 <지식채널©>을 ‘타이틀’을 기준으로 나눠보면, 사회(110회), 사람(97회), 지식(43회), 과학(36회) 등의 순서로 나타난다.<sup>8)</sup> 이러한 타이틀별 분류는 <지식채널©>가 ‘사회’분야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웹 사이트에 ‘덧글 순’으로 나열한 총 110개 프로그램의 ‘타이틀별 분류’가 모두 ‘사회(society)’로 나타나 시청자들이 현실사회에 대한 주제에 매우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지식(knowledge)’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문제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발언을 해왔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이 프로그램의 사회화 정도가 매우 강하고, 그 발언의 효과 또한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덧글 순’으로 상위 5개 <지식채널©>

제목	소재	주요내용	방송 일시	내용별 분류	타이틀별 분류
17년 후	인간 광우병 논란	1990년대 영국에서 인간 광우병을 둘러싼 정부의 대응과 사망사건들을 소개하면서, 인간광우병이 위험한 전염병이므로 국가의 안전한 소고기 관리 정책을 촉구한 작품	2008. 5.12	건강/보건, 동·식물/자연, 정치/제도	사회
명품한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과 축산 정책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에 따라 국내 축산 농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지원금정책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소’가 갖는 한국 사회에서의 의미를 되짚어 본 작품	2008. 8.11	사회/시사, 정치/제도	사회
세상에서 가장 싼 밥	싸고 맛있는 음식점들의 영업방침	서울 종로 식당가의 영업 방식을 소개하여, 식당 운영을 이윤획득에 두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소박하고 따뜻한 이웃들의 일상을 소개하여 자본주의의 본질에 질문을 던진 작품	2008. 10.6	가치관/관점, 경제, 다양성	사회
청산되지 않은 과거	독도 영유권 문제	1900년대 초반부터 독도를 둘러싼 한일양국의 역사적 관계를 살펴보고 아직까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역사적 이유에 대해 밝힌 작품	2008. 7.28	사회/시사, 역사	사회
별급 인생	필화사건	19세기 프랑스 왕, 루이 필립 시대 화가의 삼화를 문체 삼아 국왕모독죄로 기소한 사건을 예로 정치적 필화사건을 둘러싼 권력의 문제와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의 문제를 제기한 작품	2008. 7.14	사회/시사, 인물, 정치/제도	사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우선 ‘17년 후’는 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을 다룬 작품이다.

8) 연구자가 <지식채널©>의 공식웹사이트에서 제작진이 분류한 ‘타이틀별’로 직접 세어 본 결과이다. 내용별 분류는 가족/공동체, 가치관/관점, 건강/보건 등 47개로 분류되고, 타이틀별 분류는 정체성(identity), 땅(earth), 90분(2006 독일월드컵), 건강(health), 사회(society) 등 41개로 분류된다.

2008년 4월 한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허용했다. 이에 대해 ‘안전성’과 ‘굴욕외교’ 등에 관한 논란이 각종 매체를 타고 급격히 확산되면서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발족되고, 서울 광화문을 중심으로 촛불집회가 연일 이어졌다. 특히 2008년 4월 29일 방송된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서는 광우병 소와 다우너소<sup>9)</sup>의 정확한 구별문제로 사회적 논란과 함께 농림수산식품부와 MBC간의 법정싸움으로까지 비화되었다(EBS<지식채널C>제작팀, 2008). 둘째, ‘명품한우’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에 따라 축산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질 좋은 ‘명품 한우’로 승부해야 한다”는 정부의 축산지원금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작품이다. 여기에서는 정부의 축산지원금정책이 자칫 농가부채확대로 농가가 파산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셋째, ‘세상에서 가장 짠 밥’은 높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짠값에 밥을 파는 음식점 주인들의 삶을 통해 훈훈한 인간애를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은 다른 작품들과 달리 ‘지식’을 동원하지 않고 삶의 현장에 들어감으로써 성찰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청산되지 않은 과거’는 한·일 양국간의 ‘독도’ 영유권 문제를 역사적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종료이후 유럽의 전범재판과 달리 일본의 전범들은 중한 처벌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1970년대 이후에 일본의 주류세력으로서 행세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당시 일본인들은 고도성장의 그늘에서 물질중심의 가치관이 깊이 내재됨으로써 전쟁범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상실했다고 한다. 더구나 일본에서 1990년대 경제 불황기에는 보수화·우경화된 정치권이 ‘독도’라는 영토문제를 제기하여 위기국면을 타개하려 한 정치적 혐의가 짙다고 한다.<sup>10)</sup> 다섯째, ‘벌금인생’은 2008년에 발생한 ‘배우 최진실 자살사건’이 네티즌들의 악플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사이버모욕죄’ 및 인터넷실명제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된 작품이다. 이때 일부 매체는 이러한 인터넷 규제 법안들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는데, 특히 “잇따른 연예인 자살사건을 표면적인 계기로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상 촛불정국 이후로 정부 비판적인 인터넷 담론에 대해 법률적 제재를 시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EBS<지식채널C>제작팀, 2009). 이들 사회적 이슈에 대한 <지식채널C>의 주제나 구성은 일반적인 텔레비전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심층 취재보도와 매우 유사하다.

이와 같이 <지식채널C>는 현실사회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거나, 역사적 사실이나 휴머니즘적 관점에서 제작하고 있다. 특히 이들 프로그램이 방송된 2008년의 정치상황은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해이자,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둘러싼 인간광우병 논란으로 촛불시위가 발생하는 등 정치사회적인 담론이 매우 활성화 되었던 때이다. 더구나 이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EBS 김진혁 PD는 2008년 8월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동하는데, 당시 ‘광우병’을 주제로 한 <지식채널C>가 발단이 된 ‘보복인사’라는 주장으로 파문이 일었다고(정지윤, 2008.8.27). 이러한 상황은 이 프로그램의 주제나 소재가 매우 민감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사회적 파장도 만만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권력과 책임이 지식에 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우게 된다. 즉 알게 된 것을 이용한다는 것은 다큐멘터리에 개입하는 관계 맺음을 넘어 그것이 재현하고 있는 역사 세계와의 관계에도 개입하는 것이다(Nichols, 2002/2005).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한국사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다큐멘터리라는 형식을 통해 일정한 관점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는 ‘지식

9)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자꾸 주저앉는 소를 다우너(downer)라고 하고, 그러한 증상을 통칭하여 ‘다우너 소 증후군(downer cow syndrome)’이라 한다(EBS<지식채널C>제작팀, 2009, 257쪽).

10)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타나가 히로시(田中宏) 외(1994/1999)를 참고할 것.

저널리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지식채널©>의 수사학적 과정: '지식'으로 만드는 새로운 '저널리즘'

다큐멘터리 작품은 주로 관객의 미학적 감수성에 호소한다거나 거기에만 기댄다거나 하지 않는다. 다큐멘터리는 사실과 공정성에 기초를 두고 사회적이고 교육적인 기능에 더 비중을 둔다. 이러한 다큐멘터리가 어떻게 수사학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대상인 5개의 작품을 '수사학적 과정'의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첫째, <표 3>에서 보듯이 '착상'은 현실 사회의 문제에서 출발한다. 니콜스의 말대로 사회의 어떠한 사안을 다룰지를 결정하는 단계로서, 그 사안을 증명할 예술적 또는 비예술적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17년 후'는 당시에 발생한 '인간광우병 논란'이 근거가 된다. 이 사안의 심각성을 제기하기 위해 1990년에 영국에서 발생한 인간광우병 논란 사례를 BBC의 동영상에서 그 증거를 가져온다. 이 '비예술적 증거'를 가지고 반추해봄으로써 한국 정부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자유화에 대한 정책의 문제점과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명품 한우'는 축산 농가의 현실에 대해 숫자로 제시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축산농가지원금정책의 문제를 정면으로 반박함으로써, 우리 농촌의 현실을 심층적으로 고발한 프로그램이다. '세상에서 가장 싼 밥'은 인건비, 임대료, 재료비 등 경영비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수치로 제시하여 객관성을 높이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렴하게 음식점을 운영하여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삶을 인터뷰 형식을 통해 따스하게 바라보고 있다. 더구나 인터뷰 양식을 적용함으로써 투박하지만 진실된 느낌으로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이는 한국사회의 '성공'과 '부의 축적'이라는 자본주의적 경쟁에 익숙해진 우리 사회의 단면을 은유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청산되지 않은 과거'는 일본이 독도영유권 문제로 한국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것은 단순히 민족감정이나 왜곡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증명해 내고 있다. 특히 유럽과 일본의 전범 처리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사실을 오래된 흑백 증거 화면으로 보여줌으로써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벌금인생'은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작품으로서 19세기 프랑스에서 벌어진 사건의 증거자료를 적절히 섞어 비유적으로 우리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특히 정부를 비롯한 지배 권력의 여론통제 시도에 대해 통쾌한 풍자를 통해 2008년 당시, 한국사회에서 인터넷을 둘러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묻고 있다.

<표 3> <지식채널©>에 나타난 '착상'

구분	17년 후	명품한우	세상에서 가장 싼 밥	청산되지 않은 과거	벌금인생
증거 또는 근거	인간 광우병의 위험성 경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과 축산지원금 정책	어려운 상황에서도 싼 밥을 판매하는 식당	집요한 일본의 독도문제 제기	인터넷 규제에 따른 여론통제 상황
증거의 유형	비예술적 증거	비예술적 증거	예술적 증거	비예술적 증거	비예술적 증거

한편 각각의 작품에서 증거의 유형을 살펴보면 '세상에서 가장 싼 밥'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예술적 증거, 즉 뉴스나 경제적, 과학적 사실에서 '착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다수의 다큐멘터리가

‘착상’단계에서 예술적 증거를 사용하여 관객(시청자들)에게 일정한 관점을 갖게 한다는 통상적인 방식과 달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비예술적 증거’를 사용함으로써 차별화된 양식을 보이고 있다. 이는 ‘착상’단계에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지식’을 통해 시청자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근거’나 ‘증거’들을 통해 주제를 부각시켜 관객(시청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시청자들이 일정한 관점을 갖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는 현실사회의 문제를 ‘지식’으로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담론화하고 있으며, 이는 ‘지식 저널리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앞서 ‘착상’에서 제시된 예증을 단초로 ‘배치’는 서로 연관되며 좀 더 상세한 설명이나, 숨겨진 사실을 보여준다. 즉 ‘배치’는 통상 객관성 있는 자료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수사학적 과정을 진행한다. 최초의 ‘도입’부분에서는 사회적 이슈와 연관된 단편적인 지식이 한 장의 사진이나 동영상에 제시되어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는 시청자의 호기심을 자극할 뿐 아니라, 집중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설명’부분에서는 ‘도입’에서 제시된 주제를 상세한 자료를 통해 드러내고, ‘주장’부분에서는 다큐멘터리의 근본적 목적이라 할 수 있는 특정한 관점을 갖도록 제작자의 의도를 명료하게 한다. 이어서 ‘논증’에서는 ‘주장’에서 제시된 내용을 객관적 증거에 의해 최종적으로 증명하는 순서이다. 마지막으로 ‘요약’은 지금까지 제기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정리함으로써 관점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

<표 4> <지식체널©>에 나타난 ‘배치’

구분	17년 후	명품한우	세상에서 가장 싼 밥	청산되지 않은 과거	별금인생
도입	1990년 영국의 광우병 관련 BBC뉴스	명품한우에 대한 정의	서울에서 싼 밥집들	1945년 일왕 항복선언과 신사참배 장면	19세기 프랑스의 필화사건 소개
설명	당시 영국정부의 대응	미국산 소고기 수입허용 이후 축산 농가 실태	국제유가 폭등, 곡물 가격 상승에도 싼 밥값을 유지하는 음식점	1904년부터 현재까지 ‘독도’관련 역사 서술	‘샤를 필리봉’이라는 화가의 그림을 국왕 모독 행위로 탄압
주장	광우병 감염 사망 사례	정부의 축산 농가 지원금 정책의 허점 지적	싼 밥값을 지키기 위한 음식점 주인들의 비책	1970~1990년대 일본 역사: 물질중심의 성장과 보수화·우경화 현상	표현의 자유는 지켜져야 하며, 일부 부작용은 자정작용에 맡겨야 함
논증	1996년 영국의회 인간광우병 감염가능성 공식인정	지원금 정책의 문제와 곡물가격 상승 등 정책의 문제점 지적	음식점 주인의 자발적인 노동시간 확대와 희생으로 가능	1945년 극동 전범재판 이후, 전범들의 사회지배층화 등 증거 제시	그림을 국왕모독으로 기소한 것이 얼마나 무리한 것인지 증명
요약	인간 광우병은 존재하고 매우 위험한 질병임	‘한우’문제는 단지 경제적 문제만이 아님	싼 밥값에 담긴 고집은 남이 알아준다는 자부심	과거사 청산이 제대로 된 유럽과 비교하며 일본의 문제점 지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공권력은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실망감만 가중

셋째, 대부분의 다큐멘터리는 여러 가지 요인이 얽혀 형식과 내용을 만들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스타일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체널©>는 <표 5>에서 보듯이 ‘수행적 양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이 프로그램이 객관적인 지식과

정확한 사실들을 이야기하기보다, 주관적이고 정서적이며, 감각적인 이미지를 통해 일반적인 사회의 모습을 표현하는 방식을 통해 현실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에 그렇다. 이는 <지식채널 ㉔>가 ‘정보제공의 논리’가 지배적인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설득력 있는 스토리’가 지배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사회에 지배적인 상식 또는 사고, 이데올로기에 대해 풍자와 비판의 형식을 통해 의미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넷째, 각종 역사적인 증거나 증언, 자료를 통해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게 된다. 거의 모든 작품들은 과거에서 단서를 가져오는데, 대부분 역사적 사건에서 모티브를 잡아 기억을 떠올리게 만든다. 특히 ‘기억’의 재료로는 동영상이나 사진, 그림, 각종 과학적 자료들이 사용되는 데 이들 자체가 매우 낱거나 오래된 증거의 형태를 갖는다. 이러한 자료는 오히려 시각이 갖는 현실에 대한 모사성을 극도로 강조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한다.

마지막으로 ‘전달하기’ 과정인데 <지식채널 ㉔>의 특징은 한 마디의 내레이션도 등장하지 않으며, 짧은 시간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자막문자를 통해 시청자에게 제공된다. 이는 내레이션으로 내용을 전할 때 할 수 있는 강조, 감정의 뉘앙스, 발화의 변화에 따른 감성의 다양함 등을 문자 애니메이션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이다(최민성, 2008). 여기에서 ‘자막’은 ‘수사학적 과정’의 ‘목소리’보다는 ‘제스처’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소리가 아닌 시각에 의존한 ‘몸짓’과 유사하기 때문이고, 이것이 가장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의미를 생산하고 전달하기 때문이다. 이 다큐멘터리가 지닌 힘과 호소력의 상당 부분은 사운드와 이미지를 선택하고 배치하는 데 있어 ‘증거와 감성’ 양자를 결합하는 능력에 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배경음악은 <지식채널 ㉔>를 논리적으로 정확하고 정서적으로 감동적이며, 이미지를 미적으로 더욱 효과적이게 한다. 그 흐름은 비선형적으로 산포하는 비선형적 몽타주 형식이다(EBS<지식채널 ㉔>제작팀, 2007). 특히 이미지들은 시각적 증거일 뿐 아니라 그 진정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갖는 지표적인 힘 때문에 감성적인 충격을 주게 된다(Nichols, 2001/2005).

<표 5> <지식채널 ㉔>에 나타난 ‘스타일’, ‘기억’, ‘전달하기’

구분	17년 후	명품한우	세상에서 가장 싼 밥	청산되지 않은 과거	벌금인생
스타일	수행적 양식	수행적 양식	참여적 양식	설명적 양식	수행적 양식
기억	1990년 BBC 뉴스(동영상)	축산농가현실(동영상), 세계 곡물 시장가격 자료, 우시장(동영상)	서울 종로구 식당가스 케치(동영상), 주인 및 손님인터뷰(동영상)	극동 군사전법재판(동영상), 미군정기(사진), 기타 자료	19세기 프랑스 ‘샤를 필리몽’ 필화 사건(사진 및 그림)
전달하기	-제스처 = 자막의 사용 ==> 문자의 전달 효과 극대화 ==> 이성적 -목소리 = 부재, 음악으로 분위기 전달에 치중 ==> 감성적				

결과적으로 <지식채널 ㉔>에서 나타나는 ‘수사학적 과정’의 특징은, 우선 ‘착상’에서는 시의성 있는 사회적 이슈를 선택하고 있고, 그 증거로서는 객관적인 비예술적 증거를 사용함으로써 심층보도와 유사한 형식을 띠게 된다. 이어 ‘배치’는 서사구조와 유사한 과정으로서 다큐멘터리가 의도하는 일정한 관점을 갖도록 유도한다. ‘스타일’을 보면 수행적 양식이 많아 주관적이고 정서적이며, 감각적인 이미지를 매우 잘 활용하고 있다. ‘기억’에서는 사회적으로 공통의 기억과 경험을 끄집어냄으로써 대중매체가 다루는 주제의 사회성을 증명한다. 마지막으로 ‘전달하기’에서는 문자와 음악이 어우러져 감성적 충격을 줌으로써 전달력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볼 때 무엇보다도 <지식채널 ㉔>

가 갖는 수사학적인 미덕은 첫째, 짧은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수사학적 과정의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미디어 텍스트로서 전달과정 자체가 매우 중요한데, 이 프로그램은 ‘청각’보다는 특징적인 문자자막을 통해 ‘시각’을 부각시킴으로써 ‘시각’에 의존한 텍스트라 간주할 수 있고, 시각과 청각의 결합에 의해 더욱 감성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었다는 데 있다. 결국 이 프로그램에 나타난 ‘수사학적 과정’은 현대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인 ‘시각’ 우위의 텍스트로서, 현실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발언으로 호기심과 관심을 끌고, 스토리를 가진 이야기로서 구성을 갖춤으로써 수용자들에게는 현실 사회에 대해 비판적 재해석과 창조적 모방이 가능한 의미 생산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11)</sup>

### 3) <지식채널©>의 사회적 함의: ‘지식’이 생산한 새로운 ‘의미’와 ‘즐거움’

<표 6>은 앞서의 연구결과를 통합하여 <지식채널©>가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소비되고 있으며 그 메커니즘과 사회적 의미생산의 측면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지식채널©>를 통한 지식습득은 힘들여 노력해야 하는 공부라 아니라 ‘즐거움(pleasure)’이자 ‘소통’이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문제해결 능력은 다양하게 누적된 이러한 지식 콘텐츠와의 상호작용적 즐거움과 소통을 통해 구축되기 때문이다(임종수, 2007, 173쪽). 통상 시청자는 제작자의 관점이 사실상 무엇인지 추론해야 한다. 그 결과는 “이것을 이렇게 보라”보다는 “네 스스로 보라”는 것이다(Nichols, 2001/2005, 95쪽). 또한 <지식채널©>는 한국 사회 지배블력의 인식이나 이데올로기에 대한 통렬한 비난이나 풍자를 통해 2차적 의미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를 그람시(Gramsci)의 논의에 대입해보면 모두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상식’, 즉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대해 이의제기를 통해 공격함으로써 한 사회 내에서 이성적이고 일관성 있으며 논리적인 일련의 사상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다양한 이상과 가치가 사람들의 신의를 얻기 위해 다투는 경쟁지대로 들어서는 것이고, 이 경쟁은 강제적인 수단에 의하기보다는 이데올로기적인 장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Nichols, 2001/2005). 이러한 의미투쟁을 통해 지배블력의 특정한 이데올로기가 한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작품은 현재 한국 사회의 지배블력이 생산해 내는 이데올로기에 반기를 들으면서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2)</sup> 나아가 <표 6>에서 보듯이 수용자들에게 발생하는 즐거움은 흔히 믿어오던 상식의 깨짐 혹은 묻혀 있어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기존의 지배질서를 뒤집는 것에서 발생하는 통쾌함의 쾌락이라 할 수 있다. 그 통쾌함이나 즐거움은 텍스트를 마주하는 즉시 발생하는 것으로써 현실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할 뿐 아니라, 완고한 기존의 사회질서를 위반하거나 역전시킴으로서 그 순간 수용자들 개개인에게 생기는 것들이다(Hall, 1980; 김남일, 2008; 김수정, 2010). 나아가 <지식채널©>의 시청자들은 현실의 지배질서에

11) <지식채널©> 웹 사이트의 커뮤니티에는 ‘공지사랑’, ‘게시판’, ‘song to self(배경음악 알려주는 곳)’, ‘논술 & 토론’, ‘소제제안’, ‘시청자 추천VOD’, ‘제작진추천 VOD’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시청자 참여가 매우 활발하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책으로 5권까지 출간되어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일부 초·중·고 교사들은 이 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 ‘지식채널© 연구회(<http://www.coolearning.net/e>)’를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12) <지식채널©>는 2010년 10월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주관한 제16회 통일언론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최근 주요 이슈인 ‘무상급식’과 관련된 ‘공짜밥’편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이 프로그램이 한국사회에서 일종의 대항담론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맞서는 미디어 텍스트를 마주하는 순간 현실 권력에 대한 풍자와 조롱을 통해 비판적 관점을 키우고 전복적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결과적으로 <지식채널②>는 기존의 관습을 뒤엎거나 믿음을 강요하는 가치관을 뒤엎음으로써 새로운 관점을 확정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다큐멘터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최근 미디어 소비상황의 변화, 즉 오랫동안 대중매체에서 시청자가 객체였던 상황에서 주체가 되는 상황과 밀접하다. 최근 시청자들의 미디어 소비경향과 관련하여 논의가 활발한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이 실제로 구현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서현석, 2004). 즉 미디어 텍스트로서 <지식채널②>의 ‘지식’은 누군가 우월한 위치에서 주입식으로 전달하는 지식이 아닌, 스스로 겪어서 받아들이는 ‘지식’이 된다. 이 지식을 통해 다큐멘터리는 인간의 미학적 자각을 작동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 의식을 촉진시킨다. 여기에서 상상력을 발휘하고, 열정적으로 시대의 쟁점과 관심사를 강조함으로써 참여하고 싶은 자에게는 자극의 원천이 된다. 이러한 결과는 니콜스(2001/2005)의 말처럼 논쟁적인 혹은 기존의 지식이나 상식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나 논증을 통해 다시 성찰함으로써 특정 관점이 옳다는 확신을 심어주거나 믿음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생산과 소비과정을 거쳐 ‘지식’을 통한 저널리즘의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지식채널②>에 나타난 이데올로기와 새로운 사회적 의미의 생산

제목	지배 블럭의 이데올로기		<지식채널②>의 주장		사회적 의미
17년 후	수입소와 인간광우병은 관계가 없다	⇔	수입소와 인간광우병은 인과관계가 있고, 영국 사례처럼 증거도 있다.	⇒	국가의 시민보호 촉구
명품 한우	무역 장벽을 낮추는 것은 세계적 흐름이고, 축산농가를 위한 지원금 대책을 마련하였다.	⇔	축산지원금 정책은 실제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한국사회에서 소는 경제적 의미 이상의 특별한 의미가 있다.	⇒	진정한 사회적 약자배려 촉구
세상에서 가장 싼 밥	자본주의하에서 음식점을 비롯한 상업적 행위는 초과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한 상행위이다.	⇔	자본주의 체제라 하더라도,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행위보다 더 높고 중요한 공동체적 가치들이 존재한다.	⇒	반자본주의적 휴머니즘
청산되지 않은 과거	독도문제는 단순한 영유권 문제로 분쟁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극적 대응이 상책이다.	⇔	독도문제는 일본제국주의의 잔존이 남아있는 침략행위로서 역사적 맥락에서 대응해야 한다.	⇒	반제국주의, 민족주의
벌금 인생	악법도 법이다.	⇔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행위로 성찬 받아야 함	⇒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		↑	
		전복적 즐거움		의미 생산	

### 5. 결론 및 논의: ‘지식 저널리즘’의 너머에 있는 텍스트의 즐거움

이 연구는 2004년 방송이후, EBS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지식채널②>를 미디어 텍스트로 보고, 그 구성방법과 사회적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빌 니콜스의 ‘수사학’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결론적으로 <지식채널②>는 비록 짧은 프로그램이지만 ‘수사학적 과정’을 충실히 지키며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만들어 가고 있을 뿐 아니라, 다큐멘터리의 기본 임무라 할 수 있는 시청자가 어떠한 특성의 관점을 갖도록 하는 데 성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지식채널②>는 그 내용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현실을 다루고 있으며, 새로운 소재를 통해 감수성을 일깨우거나 사회적 약자와 부조리한 사회구조에 대해 알게 해 줄 뿐더러 재미를 느끼게 해주어 의미가 남다르다고 한다(허금정, 2006). 나아가 이 프로그램의 소비과정에서 기존의 이데올로기와는 다른 대항적 관점을 접함으로써 시청자들은 전복적 즐거움을 느끼며 새로운 의미를 생산할 뿐 아니라 지식 저널리즘의 역할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사 다큐멘터리가 갖는 진실 찾기 또는 사회 고발이라는 저널리즘 기능뿐 아니라 시청자들의 즐거움 형성에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시청자는 불편한 사회적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기존의 지배질서가 폭로되는 것을 관음증적 시선으로 지켜보는 통쾌함에서 즐거움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즐거움은 한 사회의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거나 추문을 폭로함으로써 생기는 전복적 의미라 할 수 있다. 이는 수용자의 해독과 관련하여 텍스트가 발생시키는 의미에 관한 다양한 논의(김수정, 2010)에도 불구하고, 수용자와 텍스트가 대면하는 순간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즐거움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현재까지 텔레비전 텍스트에서 즐거움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가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으나(황인성, 1999; 최이정, 1999; 전규찬·박근서, 2003; 김남일, 2008), 오히려 뉴스나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 즐거움은 전복적 의미로서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수준에서 담론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첫째, <지식채널②>는 한국 사회의 시의성 있는 주요 이슈를 대상으로 이와 관련된 ‘지식’을 동원하여 다큐멘터리라는 형식을 빌려 현실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발언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이 프로그램은 의미발생과정에서 ‘수사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비교적 짧은 텍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의미생산을 위한 ‘수사학적 과정’이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다. 더구나 이 프로그램은 현실사회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독특한 영상구성 방식을 채택하여 감성적 충격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의미생산 구조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셋째, 이를 심층적으로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 분석하면 <지식채널②>는 우리 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생성하는 이데올로기적 투쟁의 장을 형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에게는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뒤엎는 전복적 즐거움까지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 배경에서 이 연구는 우리 주변의 ‘지식’이 나름대로의 정치성을 띠고 있으며, 특히 이 프로그램은 한국 방송 문화에서 중요한 문화정치적인 의미를 지닌 미디어 텍스트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지식채널②>는 ‘지식’을 매개로 ‘수사학적 과정’을 통해 현실 사회에 적극적인 발언을 수행함으로써 ‘지식저널리즘’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가능성은 저널리즘의 기본적인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기존의 상식에 이의를 제기하여 그 이면의 진실을 폭로함으로써 상식을 깨트려 왔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식채널②>가 저널리즘의 역할 뿐 아니라 시청자들에게 즐거움과 감동, 재미까지 선사하는 미디어 텍스트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힌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지식채널②>가 가지고 있는 영상 구성 방식의 독특함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이에 대한 수용자 연구를 수행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내재한 영상구성의 독특한 결합이 어떻게 가능했고,

그것의 효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기대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영상 구성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제작현장이나 교육현장에서 활용하면 그 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한다.

## Ⅰ 참고문헌

- 김고종호 (2008). 5분에 담는 상식과 진실: EBS 지식채널e 김진혁 PD. 『초등우리교육』, 220호, 22~23.
- 김남일 (2008). 텔레비전 오락프로그램에서 웃음유발의 정치성: MBC-TV <무한도전>의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2-6호, 9~41.
- 김수정 (2010). 수용자연구의 해독모델과 존 피스크에 대한 재평가: 수용자연구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열린 논쟁을 위하여. 『언론과 사회』, 18-1호, 2~46.
- 박영신 (2007). 지배지식, 그 너머의 지식: ‘지식행위’에 대한 자기성찰. 『현상과인식』, 가을, 13~33.
- 서현석 (2004). ‘진실’의 끔찍한 무게: 마이클 무어와 다큐멘터리의 유동성. 『한국언론학보』, 48-6호, 397~423.
- 원용진 (2006). 매체와 지식세계. 『문화과학』, 48호, 69~89.
- EBS<지식채널e>제작팀 (2007). 『지식e』. 파주: 북하우스.
- EBS<지식채널e>제작팀 (2008). 『지식e3』. 파주: 북하우스.
- EBS<지식채널e>제작팀 (2009). 『지식e4』. 파주: 북하우스.
- 이영주·김진혁 (2009). 지식 저널리즘과 텔레비전 문화: <지식채널e>를 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 21-2호, 49~80.
- 임종수 (2006). OSMU 미디어 환경에서 지식콘텐츠 제작 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0-4, 267~301.
- \_\_\_\_\_ (2007). 디지털 시대의 지식사회학: EBS <지식채널e> 읽기. 『프로그램/텍스트』, 16호, 165~176.
- 전규찬·박근서 (2003). 『텔레비전 오락의 문화정치학』. 서울: 한울.
- 정지윤 (2008.8.27). 광우병 다큐 ‘괘씸죄’, ‘지식채널e’ 떠나는 김진혁 EBS PD. 경향신문.
- 천정환 (2008). 『대중 지성의 시대: 새로운 지식 문화사를 위하여』. 서울: 푸른역사.
- 최민성 (2008). 문자의 영상화와 그 문화적 의미에 관한 연구. 『인문콘텐츠』, 11호, 31~50.
- 최이정 (1999). 시트콤 텍스트의 ‘웃음 발생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13호, 355~387.
- 최향섭 (2008). 정보사회에서의 지식 가치의 변화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5권4호, 223~255.
- 타나카 히로시(田中宏) 외 (1994). 『전쟁책임·전후책임(戰爭責任·戰後責任)』. 이규수 역(1999). 『기억과 망각: 독일과 일본, 그 두 개의 전후』. 서울: 삼인.
- 허금정 (2006). 새로운 세상으로의 흥미로운 초대: 교육방송(EBS) ‘지식채널e’. 『창비어린이』, 4-4(통권 15호), 271~274.
- 황인성 (1999). ‘트렌디 드라마’의 서사구조적 특징과 텍스트의 즐거움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언론학보』, 43권5호, 221~248.
- Bordwell, D & Thompson, F. (1993). *Film Art: An Introduction(4ed.)*. 주진숙·이용관 역 (1997). 『필름 아트』. 서울: 이론과 실천.
- Burke, P. (2000). *Social History of Knowledge: from Gutenberg to Dederot(1st)*. Cambridge: Polity Press. 박광식 역 (2006). 『지식: 그 탄생과 유통에 대한 모든 지식』. 서울: 현실문화연구.
- Giannetti, L. (1982). *Understanding Movies(3th ed.)*. 김진해 역 (1992). 『영화의 이해』. 서울: 현암사.
- Hall, S. (1980). *Encoding and Decoding*. In S. Hall, D. Hobson, A. Lowe., & P. Willis(Eds), *Culture, media and Language*. London: Hutchinson.

- Merton, K. R. (1968).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New York: The Free Press.
- Nichols, B. (2001). *Introduction to Documentary*. Indiana University Press. 이선화 역 (2005). 『다큐멘터리 입문』. 파주: 한울.
- Plantinga, C. (1997). *Rhetoric And Representation In Nonfiction Film*.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ropp, V. (1967). *The Morphology of the Folktale*.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Stott, W. (1973). *Documentary Expression and Thirties Americ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ttp://home.ebs.co.kr/jisike/main.jsp>

(투고일자: 2010.8.31, 수정일자: 2011.1.13, 게재확정일자: 2011.1.13)

ABSTRACT

## The Study of Documentaries' 'Rhetoric' as a Statement on Social Issues: Focused on EBS-TV <JisikchannelⓂ>

Nam-Il, Kim\* · Gyu-Jeong, Lee\*\*

<JisikchannelⓂ> has become the representative program of EBS after first airing in 2004. After seeing <JisikchannelⓂ> as a media text, this study was fulfilled on the basis of Bill Nichols' "Rhetoric" discussion, in order to analyze the structural method and social meaning of the program. As a result of the study, we were first able to see that <JisikchannelⓂ> was taking form as a documentary to make a constructive statement on current affairs related to Korean society, by mobilizing 'knowledge' related to these issues. Second, the "rhetoric"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program's process to generate meaning, and despite the text being relatively short, the rhetorical process undergone for the generation of meaning has been fully reflected. Moreover, the program was successfully structuring a new method of generating meaning by enthusiastically raising questions and choosing a unique method of vision mix. Third, by looking at the study's results in-depth, we can see that <JisikchannelⓂ> was creating a ideological place for open discussion, which was providing viewers with the satisfaction of overcoming our society's dominating ideology and forming new ones. In that sense, the easily accessible 'knowledge' that surrounds us holds somewhat of a political meaning. On top of that, it can be seen that the program especially, is a media text that holds a cultural political meaning, which is an important factor to consider in the Korean broadcasting industry. In conclusion, we found out that this program uses 'knowledge' to see the possibility of 'knowledge' journalism by making constructive statements through a 'rhetorical' process.

Keywords: Rhetoric, Documentaries, <JisikchannelⓂ>, Knowledge Journalism, Pleasure, Cultural Studies

---

\* Lecturer, Graduate School of Culture and Arts, The Kyonggi University

\*\* Professor, Dept. of Film, TV & Multimedia, The Kyonggi University